



전수천 작  
'Sens of emotional aura'

## 비엔날레와 함께... 광주·전북 전시 눈에 띄네

전북 오스 갤러리·한옥공간 '아원' 전수천 설치미술전  
의재미술관 '남도 수목화 병풍'전...연진회 회원작 등  
한국미용박물관, 진시영 '획'·곽윤일 '벽을 깨우다'전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에 맞춰 광주와 전북 지역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연계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미술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작품은 물론 전통과 현대를 연계한 콜라보 전시, 한국의 미를 엿볼 수 있는 작품 등 장르도 다양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는 전북 오스 갤러리와 인근 250년 된 한옥을 이용해 조성한 한옥 문화공간 '아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수천 작가의 개인전이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기획 '전수천이 바라본 사회의 아우라'를 주제로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61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전 작가가 직접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에 요청해 준비한 전시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로 선정돼 국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 2012년에는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의재

미술관에서 배병우, 허달재씨 등과 함께 2012광주비엔날레 기념전 '변화란 무엇인가?'를 열기도 했다.  
작가는 원본이 지나는 고유의 분위기나 기운을 뜻하는 발터 벤야민의 이론 '아우라'(aura)를 정서적 에너지로 해석한 영상 작업과 설치, 평면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 작가는 수많은 대상으로부터 우리 신체가 느끼는 감성적 변화나 심리적 움직임에 따른 아우라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환상이나 추상적인 감성들을 시각화한 개인의 꿈, 환상, 체험, 오브제 등을 전시장 화면에 띄운다. 스레기장을 나는 새들처럼 어 울리지 않은 대상을 한 화면에 구현해 인간성 회복이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전 작가는 전북 출신으로 일본 동경 무사시노 미술대학과 외고 대학·동대학원 예술학과, 미국 뉴욕 프랫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의재 허백련 작 '산수십곡병풍'

국민 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 최우수 예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3-244-7102.  
매회 광주비엔날레 때마다 연계 전시를 선보여온 의재미술관에서도 지난 4일부터 '남도 수목화 병풍'전이 열리고 있다. 11월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광주비엔날레와 상반되는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우리 전통 수목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전시는 의재 허백련 선생과 그의 문하생들인 연진회 회원들의 병풍 작품들로 꾸며지고 있다. 특히 의재 선생이 1960년대 제작한 10곡 병풍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의재 선생의 스승인 무정 정만조 선생의 친필 8곡 병풍이 함께 전시된다. 또 의재 선생 81수를 기념해 제작된 그린 합작품 등 다수의 병풍이 함께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222-3040.  
한국미용박물관도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으로

대례복 차림에 사용됐던 머리 대수(大首)를 현대미술과 조우시킨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미디아트-대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0월7일까지다. 전시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던 미디아트스트 진시영씨의 특별전 '획'과 곽윤일씨 초대전 '벽을 깨우다' 등으로 구성됐다.  
진 작가는 전통미용문화인 가체를 첨단 예술기법과 연결시켜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시대대진을 되돌아본다. 곽 작가는 가체 체험을 통해 현대의 시선을 담아낸다. 문의 062-514-6622.  
이 밖에도 은암미술관에서는 17일까지 도예가 오상문 작가와 미디아트스트 진시영 작가의 융합전 '흙, 빛을 품다'전이 열리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일본 서예와 도자기 작품들을 소개하는 '서·도·꽃 시즈라이'전이 진행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박유민의 웅장한 거문고 선율

빛고를 국악전수관 내일 열린국악한마당

웅장하고 남성적인 거문고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거문고 연주자 박유민(사진)씨가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열리는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공연에 참여한다. 18일 오후7시 전수관 공연장.  
'만화방장(萬化方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6현위에 따뜻한 봄바람을 싣고'에서는 정악 '천년만세', '한강특류 거문고 산조' 연주를 통하여 6현 거문고의 매력을 선보인다.  
2부 '현금 위에 꽃을 피우다'에서는 창작곡 'change', '꿈을 향해 가는 길'을 선사한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

## 인성고 동문 예술 향연 '인성문화예술제' 21일까지 양림미술관

광주인성고등학교총동문회(회장 선정민)가 주최하고 미술동문 이삭회(회장 류재용)가 참여하는 '2014 인성문화예술제'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인성문화예술제는 동문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동문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음악회로 꾸며진다. 이삭회는 인성고 미술반 출신들과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동문의 모임이다.  
21일까지 열리는 미술제는 인성고 미술교사로 재직했던 이정주 전 광주대 교수를 비롯해 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류재용·최인선·박구환·최철·윤익·박정용·김상옥·조문현·정선휘·최재덕·박도진·김정태·김영태·백상옥씨 등이 참여하는 전시로 꾸며진다.  
전시 오프닝은 20일 오후 6시30분 음악



류재용 작 '산수유 마을 이야기'

제에 앞서 열린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양림미술관 앞마당에서 강바우 퓨전난타(단장 양준식), 소프라노 김선희, 통기타 가수 정용주, 색소폰 연주자 김성진, 국악단 도드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제가 진행된다. 서양화가 류재용씨는 "이번 행사를 통

해 전시에 작품을 출품한 초대작가들과 이삭회 회원들이 연령과 문화를 초월해 여러 측면의 심도 있는 담론을 생산하고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75-700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병아리들의 박물관 속 숲 여행' 나주박물관, 6~7세 아동 대상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9~11월 매주 2, 4주 수요일에 6~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숲 생태 체험 프로그램 '병아리들의 박물관 속 숲 여행'을 운영한다.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은 '박물관 뒤편 딱따구리 숲에서 풀밭 곤충 관찰하기', '나뭇잎의 색깔 변화와 숲 속 씨앗과 열매에 대해 알아보기', '나뭇가지를 이용한 만들기' 등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http://naju.museum.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1-330-78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대형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용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